

삼척 흥전리사지서 통일신라 유물 대거 출토

불교문화재연구소, 10월 20일 시발굴조사 성과 공개

불교계 연구기관의 시발굴조사 지역에서 통일신라 시대 유물이 대거 출토됐다. 특히 불교의식 장엄구로 추정되는 화려한 금동장식판이 나와 화제다.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정안)는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의 허가를 받아 조사 중인 삼척 흥전리사지 발굴조사 결과를 10월 20일 삼척 흥전리사지 현장에서 공개했다.

새로운 유물에는 금동 장식판과 금동 달개장식, 높은 위계의 건물에서 쓰이는 귀면와, 곱새기와(지붕 마루 끝의 장식기와), 연화문·당초문이 새겨진 다량의 암·수막새 등이 출토됐다.

특히 금동장식판은 장식판 중앙에 불꽃모양의 화염문(火焰文)을 투각하였고, 테두리에는 꽃무늬와 연주문(聯珠文, 크고 작은 구슬형태의 원을 연속한 모양)이 정교하게 음각돼 있다.

금동장식판의 제작 양상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3차원 컴퓨터 단층촬영(CT) 결과, 직사각형의 얇은 금동판이 두 번 접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테두리 끝 부분 2곳은 경첩의 연결고리 모양으로 돌출되어 있었는데, 이는 매우 드문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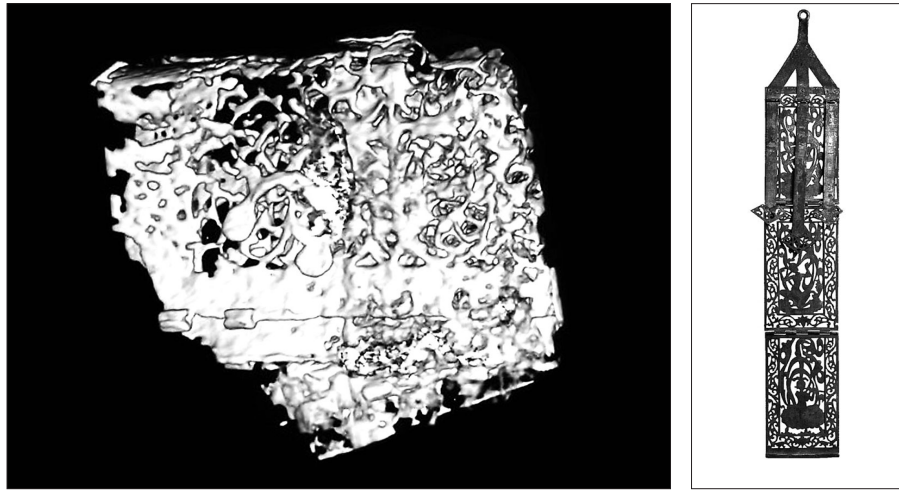
불교문화재연구소 측은 "이 장식판은 불교의식에 사용되는 장엄구의 장식판으로 추정되며, 금동번(幡, 깃발)이나 번의 장식판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화염무늬 음각 금동장식판 등 나와

불교의식 장엄구· 번 장식 추정

좌우 부속건물 달린 금당지 조사도

이와 함께 이번 조사에서는 금당지에 대한 정밀발굴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금당지는 좌우에 부속 건물 좌우에 잇대어 지은 부속 건물인 '익사(翼舍)가 있는 형태로 확인됐다. 익사는 부속 건물 좌우에 잇대어 지은 부속 건물이다. 또 경주 분황사지와 합천 영암



흥전리사지에서 출토된 화염무늬 금동장식판(사진 왼쪽)과 금동번(사진 오른쪽)

사지, 순천 금문사지 등과 같은 기단 내부를 할석으로 채운 운동지정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문화재청과 불교문화재연구소가 2013년부터 시행 중인 '중요 폐사지 시발굴조사사업' 중 하나다.

삼척 흥전리사지는 2014년 1차 시·발굴조사를 통해 금당지와 탑지를 비롯해서 여러 동의 건물지가 확인된 곳으로 당시

'국통(國統) 명 비석편과 화문(花文)이 세밀하게 음각된 청동제 장식, 귀면와(鬼面瓦)와 곱새기와 등이 출토된 바 있다. 국통은 신라시대 최고 승려에게 붙는 호칭으로 흥전리사지의 당시 위상을 짐작케 한다.

조사단은 향후 흥전리사지에 대한 연차 발굴조사를 실시해 전체 사역과 가람배치, 창제시기와 성격 등을 보다 면밀히 밝힐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불교와 미래경영' 불광연찬회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11월 6일 불광교육원 3층 문수당에서 '불교와 미래경영'을 주제로 제26차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날 연찬회에는 불교계 경영전문가들이 대거 발표에 나서 불교 가르침에 따른 경영기법 등을 설명한다. 먼저 △윤성식 고려대 교수의 '불교와 경영의 만남' △유필화 성균관대 교수의 '불교경영의 정신과 이론' △안종상 감성경영연구소 대표의 '불교경영의 실제와 사례' △이연오 바른경영연구소 소장의 '불교와 미래경영의 방향' 등이 발표된다.

이와 함께 박경준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이정민 모다프레이 대표, 고실석 진영코리아 대표가 참석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불광연구원 측은 "최근 자본주의와 불교, 경영과 불교를 접목하는 연구성과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고, 정명기업이나 까르마 경영처럼 불교와 경영이 접목된 사례들도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리는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불교와 경영이라는 주제로 제기된 산발적인 논의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국내 유일 '보살상 봉안 쌍탑' 양식 드러나

원주 법천사지 발굴현장 21일 공개...문화재청 "불국사에 비견"

국내 최대급 사지로 알려진 원주 법천사지에서 쌍탑에 보살상을 배치한 독특한 탑양식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10월 21일 원주 법천사지(사적 제466호) 발굴현장을 공개했다. 원주 법천사지는 원주시(시장 원창목)와 강원고고문화연구원(원장 지현병)이 5월부터 발굴조사 중인 곳으로 2001년부터 올해까지 총 10차에 걸쳐 발굴이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금당 앞의 동편과 서편에 대칭의 석탑과 그 앞에 각각 1기씩의 보살상이 배치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내 유일 사례로 그동안 탑 앞에 보살상을 배치한 예로는 강릉 신복사지, 평창 월정사, 논산 개태사 등 4곳이 있었지만 법천사지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은 1기의 보살상만을 두고 있다.

동편과 서편의 석탑은 현재 지대석만 남아있는 상태로 서쪽 탑지의 전면에는 적심(積心, 구조물의 기초부에 채워 넣은 흙과 돌) 위에 6각형 지대석이, 동탑지의 전면에서는 지대석 없이 적심만 발견됐다.

문화재청은 서탑지의 6각형 지대석과 함께 이미 수습된 연화양련대좌, 연화복련대석, 석조보살상 다리 부분, 석조보살상

몸통 부분을 고려해 탑 앞에 보살상이 안치됐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에서는 '철제 은입사 말재갈 멈추개' 1점이 출토됐다. 그동안 철제 또는 금동으로 말재갈이 제작된 경우는 국내에서 다수 확인된 바 있으나 은입사를 한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다. 은입사는 은실을 이용해 문양을 넣는 세공기법으로 철제에 은입사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은입사의 문양 또한 꽃무늬를 정교하고 세련되게 표현해 고려시대 뛰어난 세공기술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로 평가된다.

또 이번 10차 발굴조사에서는 법천사 추정 중심사역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와 함께 법천사 사역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외곽지역 시굴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법천사 중심사역은 남북 72.6m, 동서 52.5m의 직사각형 회랑 영역(면적 3,811㎡) 안에 금당(金堂)과 강당(講堂)이 남북으로 일직선 상에 놓여 있으며, 이 금당 앞에 두 기의 탑이 배치된 2탑 1금당 형태의 가람배치로 확인됐다.

금당은 남북 14.4m, 동서 17.3m의 기단 내에 정면 3칸, 측면 3칸(건물면적 105.6㎡)의 규모로 강당은 남북 16.8m,



원주 법천사지 서탑지 앞의 공양보살상

동서 35.8m의 기단 내에 정면 7칸, 측면 3칸(건물면적 369.6㎡)으로 조성됐다.

문화재청은 "중심사역의 평면 형태는 경주 불국사의 가람배치와 비견될 수 있다"며 "법천사의 전성기가 시작되었던 고려초 가람배치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신라시대 창건된 원주 법천사는 고려시대 크게 융성했지만, 임진왜란 당시 소실됐다. 그동안의 발굴조사에서는 전체사역이 계획적으로 건립된 다원식(多院式) 가람배치 구조가 밝혀진 바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와심리, '치유와 건강' 심포지엄 개최

11월 13일 서울불교대학원대 대강의장에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부설 불교와심리연구원(이하 불심원)은 11월 13일 오후 1시 서울불교대학원대 대강의장에서 '치유와 건강'을 주제로 제6회 불교와심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불교와심리연구원은 응용불교와 관련된 주제 연구 및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에 개설된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의 학제 간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제1회 불교와심리 심포지엄에서는 '불교와 상담심리', 제2회에서는 '불교수행과 뇌, 그 치료적 의미', 제3회 '명상과 무의식', 제4회 '영성과 무아', 제5회 '화 또는 분노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서현희 서불대 명

상학 박사의 '치유 관점에서 본 초기불교의 사성제' △왕인순 서불대 심신통합치유학 박사의 '요가의 전일건강모델과 요가심신테라피 실제' △오세준 서불대 상담심리학 박사의 '켄 윌버의 통합 사상을 중심으로 살펴본 통합적 건강' △신경희 서불대 심신통합치유학 박사의 '정신신경면역학과 전일적 건강에 대한 통합적 접근' 등이 발표된다.

불교와심리연구원 측은 "괴로움의 소멸과 치유의 관계, 요가의 전일건강모델과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요가테라피의 실제, 정신신경면역학에서 보는 건강, 뇌과학에서 보는 건강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며 "치유와 건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02)890-2854 노덕현 기자

한국선학회, <선문염송> 학술세미나

한국선학회(회장 신규탁)가 선학원과 공동으로 11월 6일 연세대 워당관에서 주제 정기간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선문염송>과 <염송설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봉선사 조실 월

은 스님이 '선문현과의 인연, 후학들에게 당부'라는 기조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세미나에서는 △전재강 안동대 교수의 '선문염송 등 선어록을 활용한 선 수행' △박재현 동명대 교수의 '선문염송과

염송설화의 텍스트성' △김삼일 동국대 교수의 '선문염송과 한국 선시문학' △박영록 한국교통대 교수의 '선문염송·염송설화 번역 어휘에 대한 재검토' 등이 발표된다.

이날 논평자로는前海인사 강주 해월 스님, 오용석 연세대인문과학연구원 연구원, 이상한 한국고전번역원 교수, 안재철 제주대 교수가 나선다.

노덕현 기자

정토학회 <정토학 연구> 학술등재지로 선정

한국정토학회(회장 신규탁) 학술연구지 <정토학 연구>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됐다.

한국연구재단은 한국정토학회가 '학술지 평가 이의제기'를 한 데 대해 재심을 벌여 최종적으로 '등재학술지'로 선정됐다고 통보했다.

<정토학 연구>는 재심에서 '계재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성과', '편집위원(장)의 전문성', '투고논문 심사제도의 구체성 및 엄정성', '논문의 구성과 체계의 완전

성 및 가독성' 등 6개 항목에서 당초 심사점수 보다 많은 100점 만점에 88.68의 점수를 획득해 등재학술지의 지위를 갖게 됐다.

신규탁 교수는 "회장은 '본 학회에 좋은 논문을 투고해주시는 여러 연구자님과 편집위원, 임원 여러분과 이 기쁨을 함께 하고 싶다'면서 "향후 더욱 노력해 좋은 연구는 문들이 실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불교학연구회, <불교학연구> 제44호 발간

불교학연구회(회장 최홍남)는 최근 <불교학연구> 제44호를 펴냈다. 이번호에는 △우동철 전남대 박사의 '역관(逆觀)의 심이연구-심이연기와 중도의 관계' △장규연 동국대 HK교수의 '원족(법화경) 일승 인식의 특징과 그 교판적 의미-진제사유 계승의 한 측면' △김영진 동국대 교수

의 '탕용통의 승조 이해에서 보이는 본체론 도식의 문제점' △김경래 동국대 박사의 '랑가섬 국가종교의 내부분열에 대한 비판적 소고' 등이 실렸다.

한편, 불교학연구회는 10월 31일까지 <불교학연구> 제45호 논문을 접수 받는다.

노덕현 기자



禪農教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입·중·안내

1 입중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접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중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 (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집합니다.

